



Lim Bona

2011 B.F.A in Ceramic Art &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014 M.F.A in Ceramic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012 East Asian Contemporary Ceramic Exhibition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 Museum)
2012 The 28th jilggol Group Exhibition
(Seoul, Korea Ceramic Foundation Gallery)
2013 Tradition N Contemporary (Paju, Han Hyang Lim Onggi Museum)
2013 The 1st Lim Bo Na Ceramic Exhibition (Seoul, Gallery Gabi)
2016 Craft Trend Fair participation (Seoul, COEX)
2017 Introduction to Gallery Jawoonjae Exhibition
(Ilsan, jawoonjae Gallery)
2017 City Museum of Asaka Exhibition (Japan, Asaka City Museum)



《BN Teapot series!》
2016

任寶娜

2011 ソウル科学技術大学 陶磁文化デザイン学科 卒業
2014 ソウル科学技術大学 産業大学院 陶芸学科 卒業

2012 アジア現代陶芸展 (新北市立鶯歌陶瓷博物館/台湾)
2012 第28回ジルコル展 (韓国陶磁財団ギャラリー)
2013 Tradition N Contemporary (ハンヒャンリムギャラリー/韓国)
2013 任寶娜 展 (ギャラリーGABI/韓国)
2016 工芸トレンドフェア 創作工房館参加 (COEX/韓国)
2017 「ザウンジェ韓国の美術にとどまる」展 (ザウンジェギャラリー/韓国)
2017 「アート×朝霞 丸沼芸術の森U50作家達による」展 (朝霞市博物館)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sy.es>

任寶娜 展 — ティーポット・シリーズ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任寶娜 展 / Lim Bona Solo Exhibition ティーポット・シリーズ BNL_Teapot Series



Marunuma Art Park
2017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4

2017年11月24日(金) — 26日(日)

丸沼芸術の森と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が共同で実施する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四人目の作家として滞在制作を行う任寶娜^{イムボナ}は、これまでソウルを拠点にカラフルで機能的なティーポットやカップを発表してきた。

両親からの影響で、幼い頃から作陶に親しんだ任にとって、高校から大学院に至るまで陶芸を専門的に学び、その後、陶芸家を目指したのは、自然な流れだったという。

本展で発表する《BNL_Teapot》シリーズは任が数年に渡り取り組んできたもので、「BNL」とは自身の名前のイニシャルである。その形態は、一見、石膏型に鑄込みで制作されたもののように見えるが、茶こしや注ぎ口も含め、ほぼ全て轆轤^{ろくろ}で制作したものだという。急須本体のフォルムや各パーツの細部の成形の正確さから、その技術力の高さを感じさせる。そして、鮮やかな色合いは釉薬による彩色ではなく、陶土に顔料を混ぜた色土で表現しているという。これらのモダンでシンプルな日常茶器は、茶を煎れる行為を彩るものとなるだろう。

大竹輝明(丸沼芸術の森 学芸員)



《BN Teapot series!》2016



《BN Teapot series!》2016

마루누마 예술의 숲 과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아티스트 인 레지덴스 프로그램의 네 번째 작가로서 체제제작을 하게 된 임보나는 지금까지 서울을 거점으로 칼라풀 하고 기능적인 주전자와 컵을 발표해왔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도예작업을 가까이에서 접해 왔던 임보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도예를 전문적으로 배워왔고 그 후 자연스럽게 도예가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 발표 할 《BNL_Teapot》 시리즈는 임보나가 수년간 집중적으로 제작하여 온 것으로, [BNL] 은 자신의 이름의 이니셜을 뜻한다. 작품의 형태들은 언뜻 보기엔 석고 틀에 의한 제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차 거름망 과 주전자 물대 등 거의 모든 형태를 몰레 성형으로 제작 하였다고 한다.

주전자 본체의 형태 및 각 부분의 세부 성형의 정확도를 보며 그녀의 기술력의 높은 수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형형색색의 색 조화는 유약에 의한 채색이 아닌 점토에 안료를 섞어서 만든 색 소지 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모던 하고 심플한 임보나의 다기는 일상에서 차를 담아내는 행위를 장식 해 주는 존재가 되어 줄 것이다.

오타케 테루아키 (마루누마 예술의 숲 학예사)